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2
Feb. 2023
Vol.11 No.02

통권 102호

- 주안에 Hope
- 주안에라이프 개강
- 세마장학회
- 교육부 / 코람데오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27개국 48명 협력선교



확장되는 '주안에 미션'

주안에교회 후원 협력선교사 27개국 48명의 지역별 분포 지도

■ 주안에교회 해외선교

주안에교회 해외선교사역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창립 이후 10년간 말씀과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내실을 다져온 주안에교회가 이제는 시선을 이웃과 지구촌으로 향하며 더 큰 나눔과 선교사역의 뜻을 힘차게 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 주신 재정적인 안정과 넘치는 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한 사역은 이미 2022년에도 신학교들과 한국의 목회자 돕기, 초록어린이재단 지원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2023년을 맞아 주안에교회는 지원해 오고 있던 기존 7개국 12명의 협력 선교사 지원의 범위를 최대 100여 명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존 선교위



원회를 '주안에미션'으로 변경하고, 1차로 27개국 48명의 선교사와, 1개 선교기관을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당회를 통과해 3월부

터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또한 선교사 추천, 서류 검토와 심사, 지원 결정, 약정서 작성, 매월 선교의 상황과 기도제목 올리기, 현지방문 등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후원협력 선교사 확대로 주안에교회 해외 선교지는 지역별로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안권이 11개국, 중동 3개국, 유럽 3개국, 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 남미 3개국, 미국 내 나바호 지역, 순회선교사 2명 등이다. 앞으로 발행될 격월간지 '주안에미션'을 통해 선교지와 주안에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고 온 교우들이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관계기사: 10, 11면>

| 조용대 기자 |

■ 주안에 Hope

30여명의 갇힌 형제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빛을

갇힌 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소망과 복음을 향한 창문을 열어주기 위한 주안예교회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몇몇 성도들이 이미 교도소 수감자들을 찾아가 면회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준비해 오던 중 지난 2월 5일 주일예배 후 30여 명의 팀원들이 모여 정식으로 ‘주안에호프’를 출범한 것이다.

먼저 이정미 전도사로부터 사역국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팀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요 사역으로는 남가주와 중가주에 산재한 주교도소에 수감된 한인 재소자들 가운데 선정된 현재 35명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신앙서적 보내고, 중보기도 하는 것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신형 등 장기 수형자들로,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최혁 담임목사는 ‘우리 모두가 감옥 안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전제하고 예수님도 옥에 갇힌 이웃을 찾아가는 게 곧 예수님 자신을 찾아주는 것과 같은 것임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

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은 사역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8면에 계속)

만남과 배움의 장, 첫날 120여명 등록 열기

■ 주안에라이프 봄학기

주안예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하여 개최하는 프로그램인 “주안에라이프” 봄학기가 3월 1일 개강을 했다.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9:15분 부터 정오까지 진행이 되며 수업 후에는 푸짐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주안에라이프” 과목으로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함을 드릴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폰, 색소폰, 탁구, 베드민턴, 라인댄스, 스트레칭 등 총 18과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120여 분이 등록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요일을 기다리신다고 한다.

개강 첫날인 3월 1일은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신 거의 모



든 분들이 출석을 하셔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고 점심식사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헤어질 줄을 모르시고 환담을 나누셨다.

앞으로 12주 동안 “주안에라이프”를 통하여서 더욱 활기찬 시간들을 누리기를 바라며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소망한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할배 골프회

주안예교회 골프회 “주안에 할배들” 주관으로 주안예교회 10주년 기념 및 교육관 건축 기금모금에 동참하는 뜻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연령에 제한없이, 골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셔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게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한다.

- ▶ 일시: 3월 25일 (토) 오전 10시
- ▶ 장소: Knollwood Country Club (1240 Balboa Bl, Granada Hills)
- ▶ 신청 및 연락: 이규환 장로 (831) 277-2402, 박웅기 집사 (253) 334-3976



성경암송 3년째 학부모·학생들 관심 뜨겁다

■ 세마장학회

주안에세마장학회 성경암송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첫 평가 심사가 열린 지난 2월 25~26일에는 가장 어린 킨더가든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40여 명이 참가해 금년도 과제로 주어질 시편 46편을 암송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시편 119:97-106, 갈라디아서 6:1-10절까지 마쳐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주안에교회 장학회는 5년 전 설립 당

시 봉사과 에세이를 기준으로 칼리지와 칼리지 입학 예정자들 중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했으나, 2021년부터 방식을 변경해 주안에교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암송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주안에교회도 우리 2세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장학회 명칭도 주안에세마장학회로 변경해

3년째 암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 2년간 110명이 참여해 700장이 넘는 성경을 암송, 총 81,2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금년에도 7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과 주일 오후 심사해 8월 중 수여식을 하게 된다. 암송해야 할 성경은 다음과 같다. 시편 46편, 시편 119편 97-106, 로마서 12장(Extra Credit), 갈라디아서 6:1-10절,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1장, 요한1서 1장.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담당 전도사와 크리스 이목사에게 하면 된다. | 조용대

■ 주안에말씀

40여명이 한 목소리로 말씀낭독 '은혜 충만'

주안에말씀은 아침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져 있다. 아침반은 오전 10시에, 저녁반은 오후 7시30분에 줌으로 말씀 통독을 하고 있다.

아침반 리더가 하루 전날 모든 참석자들이 1장 내지 2장을 읽게 배분해서 리스트를 보내주면 모든 참석자는 자기 분량을 잘 읽도록 하루 동안 준비를 한다. 성경 개요와 같이 보내준 리스트를 갖고 하룻밤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통독의 참여와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통독이 끝나면 하루 한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모든 통독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다. 참가자가 많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아침반에는 딸과 어머니, 사위와 장모가 함께 말씀을 낭독해서 더욱 가족과 함께 하는 말씀의 시간이 된다. 84세의 권사님도 참석하셔서 도전이 되게 해주시는 아침반이다. 저녁반은 20대부터 70대까지 33명이 통독하고 있는데 화면 가득히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열심으로 가득차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일 년에 두 번씩 통독반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지 기대하게 된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다양한 분포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온 통독반의 경험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다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 주안에



교회 말씀 사모열은 큰 불꽃을 일으킬 불쏘시개 같이 기대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다. | 이예스더 기자 |

■ 이달에 만난 사람/ 이광조 안수집사

‘발없는’ 어르신들 위해 차량봉사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안예교회와 함께 어떤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안예차량국을 섬겨 온 이광조 안수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미국생활에서 발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운전 못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집사님은 교회 창립이후 지금까지 주말마다 묵묵히 차량라이드 봉사하고 있다.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지만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혼자 세 딸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 딸들이 장성하여 그 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으니 앞으로 세 딸들이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망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다.

신장이 안 좋으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고 계시지만 약해진 신장을 이식만 받게 된다면 더욱 더 건강해져서 그동안 꾸준히 섬겨온 차량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거라는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따라 집사님의 소망처럼 언젠가 신장을 이식받아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성은 기자 |

■ 새가족 소개/ 김승훈 안수집사·김정이 권사

목사님 열정적 메시지 무너졌던 소망이 살아나

왠지 2023년은 우리 가정에 특별한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작년 연말을 지나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올해 1월 초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월 첫 주 수요일부터 주안예교회 신년 특별 새벽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 1월 둘째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를 옮기리라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특새의 주제처럼 "신의 섭리"가 저희 가정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새를 미리 나왔던 탓인지 등록을 하면서 교회가 낯설지 않았고 반갑게 맞이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 사역을 맡으신 분들의 친절함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무너져 있던 소망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 하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안수집사·김정이 권사

예배시간에 올해부터 주안예교회가 100개 선교지를 섬기기로 하신다는 말

씀을 하실 때에 놀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적 성숙을 소원하던 저에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평신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주관하시는 말씀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주에 "주안예삶"이 오픈 된다는 광고를 듣고 저희 부부가 곧바로 등록하여 현재 줌으로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관객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주안예교회의 지체로 저희 부부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 한글학교 역사체험

104번째 삼일절 맞아 모국사랑·역사체험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민중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주안에 한글학교에서는 104번째 삼일절을 맞이하여 너무나 뜻깊은 날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배우고 감사하며 어린 친구들은 고사리 같이 작은 손이지만 야무지고 진지하게 풍선에 태극기를 그려 넣고 윗반 언니 오빠들은 “가슴속 태극기를 꺼내다” “평화 새로운 내일” 등의 표어를 만들어 써보며 마음속에도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새겨보았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



녀들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더욱더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체험을 경험하는 교두보의 역할도 이어가겠습니다. | 이현영 기자 |

성경암송하면 돈이 생겨요



■ **미니 달란트 시장** 2월 26일 주일예배 후 IC POWER 에서 미니 달란트 시장이 열렸다. IC POWER 는 매주 2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주에 배운 말씀을 듣고 외우는 성경구절 암송과 성경의 본문을 집에서 다시 묵상하며 문제에 답하는 숙제이다. 이 두 가지 숙제와 출석을 통하여 달란트를 모은 아이들은 오늘 열린 달란트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시장에는 장난감, 문구류, 인형, 간식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은 자신이 모은 달란트로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었다. 김민재 전도사는 대략 6월쯤 IC NOW도 같이 Main 달란트 시장을 열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미니 달란트 시장을 연 진짜 취지는 Main 달란트 시장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진열된 상품이 아닌,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형·동생 짝궁되어 '보물찾기'

■ **발렌타인 행사** 2월 12일 발렌타인데이 주일을 맞아 IC NOW 와 IC POWER 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후 숨겨진 보물(말씀카드와 초코렛 박스)을 찾는 이벤트가 있었다. 동생들인 IC NOW와 형님들인 IC POWER가 한 명씩 짝궁이 되어 서로 도와 보물을 함께 찾고 말씀카드를 찾아 암송한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코렛을 주는 날이지만,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챙기고, 도우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 이성은 기자 |



■ ICY Valentine's day Banquet:
Sister's Appreciation day

Raising Our sisters with God's Love

On February 12, 2023 ICY hosted its annual Valentines day banquet. This year, the banquet was meant to express appreciation to all of the young women of the ministry, from leaders, to members of the praise team, to weekly attendees of ICY's weekend services. To exemplify this appreciation, the young men of ICY were tasked with serving their sisters in Christ both before and during the banquet.

Official preparations began on Saturday, February 11, to decorate the ICY worship room and film entertaining videos to be shown at the banquet. High school boys were tasked in filming a parody of the KPop idol group Blackpink's hit song, "What is Love?" Middle school boys were filmed performing a humorous yet philosophical skit questioning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if there were no women. In addition, small group leaders individually filmed 'thank you videos' to be shown in compilation.

Come Sunday, the banquet commenced after weekly service led by Pastor Samuel Lee. ICY brothers were tasked



with serving their sisters in Christ before serving themselves.

After the videos were presented and the food was served, ICY leaders led a trivia quiz activity, putting the boys against the girls. The questions were purposefully made to the advantage of the girls.

Overall, the event was a resounding success. None of this was possible without the contributions of many individuals. A special thanks to the pastors and leader-

ship of ICY for planning and carrying out this event and for always putting effort into preparing fun activities and events for the ICY youth. And as always, a heartfelt thank you to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of the PSG committee for preparing yet another wonderful meal for the banquet. Their continued service to ICY, both as parents and volunteers, is forever received in gratitude.

Chris Kim

■ Türkiye&Syria Earthquake Relief

Sharing God's Love with Our Neighbors

On the evenings of Wednesday, March 1, and Friday, March 3, ICCC held prayer services in an act of solidarity for the victims of the recent Türkiye-Syria earthquake that began on February 6, 2023.

The 7.8 magnitude earthquake, along with several aftershocks, struck the geographical region that ranged from southeast Türkiye to northwest Syria, killing over 50,000 people and destroying over 160,000 buildings i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over 1.5 million people have been left homeless due to the earthquake. Total damages caused by the earthquake is predicted to be about \$84 billion.

This was the strongest earthquake to occur in the region since the 1939 Erzican earthquake. It is also the deadli-

est earthquake in Türkiye, the deadliest worldwide since the 2010 earthquake in Haiti, and the fifth-deadliest earthquake of the 21st century. The devastation is sure to leave a deep impact on Türkiye and Syria for many years to come.

During the services, dona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congregation, all proceeds going directly to aid for the victims of the earthquake. Although the services were meant to be the main collection period, it is not too late to donate through ICCC. To contribut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are encouraged to take a church offering envelope, mark it as "aid," and deposit the donation during regular service times.

For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ICCC at (818) 363-5887 or visit the front office for more information.

I graduated from UCLA and am currently preparing to apply to law school. In high school, I was a student writer for the newspaper Korea Times and during my time at UCLA I was a writer and copy editor for the campus magazine Bruin Life. Having been at ICCC for almost a year now, I have often asked myself how I can truly use my talents to serve the Lord. But now given the opportunity as a contributor for the ICCC newsletter, I have many good plans to help expand and improve the EM column, covering more church events and opening up the EM ministry to the rest of the church and community.



Chris Kim

■ 발렌타인 스페셜

80인분 ‘사랑의 레시피’ 로 구워냈어요

1월 9일 월요일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리더 회의시간인 밤 9시 반 무렵, ‘Valentine’s Day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에서 시작된 회의안건. 코람데오 한어청년들 간의 돈독한 교제의 주된 목표와 더불어 항상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준 EM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다 싶어 준비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뭉치고 뭉쳐 항상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과 항상 늦게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의 여분의 몫까지 생각하며 준비된 <하트 또피아 피자 80인분>.

코람데오 청년 리더들은 각자 책임감으로 준비하며, 금요일부터 재료 사느라 수고한 청년들과, 특별히 집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준비해 온 청년들 덕분에 수월히 진행될 수 있었다.

2월 12일 주일, 빠른 점심 식사 후에 다른 청년들과 함께 주방에 마련된 자리에서 재료 배정 및 손질 그리고 진행까지 순조롭게 해 나가며,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보기에 좋았고, 맛 또한 우수했다. 받아볼 모든 이들에게도 충분히 만족될 만한 음식이라 기대하며 한 판씩 구



워 나오는 피자를 잘 담아 음료와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EM 예배가 끝날 시간에 맞춰 예배당 앞에 줄 서서 나눠주는 그 시간이 설렘속 참 감사했고, 받아 들고 좋아해주는 그들의 미소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사역자 분들과, 식사 섬김의 몇몇 분들과, 이밖에도 여러 분들과 나누었고, 마침내 코람데오 청년들도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나눠먹고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주신 주 은혜에 속으로 모두 감사하며 마무리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EM청년들이 직접 춤과 함께 감사영상도 보내주고, 달콤한 캔디까지 담아 표현해 준 것에 코람데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주안예교회 성도 모두 항상 주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주님 사랑 나누고 흘러 보내는 훈련들을 통해 각자 돌아가 살아낼 삶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이들과도 크신 주님 사랑 나누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 안세진 성도 |

■ 형제/자매의 날

게임 통해, 음식 만들기 통해 가족같은 따스함이...

형제의 날을 앞두고서 교회에서 보던 형제들을 교회 밖에서 보는 것이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비오는 날씨에 여러 명이 밖에서 모이면 혹시 사고나 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혹시 재미가 없어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람데오의 모임은 코람데오의 모임이었고 서로를 챙기고 위하는 마음과 행동은 생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처음 해보는 듯한 레이저 태그는 꽤나 활동적인 액티비티였고 적당한 승부욕과 소속감을 주어서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개인 기록도 나오고 팀 기록도 같이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서로 점수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재미를 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월남국수는 아주 적합한 메뉴였고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식사였습니다. 같은 시각 자매들은 광비키 자매의 집



에 모여 월남쌈과 김밥을 만들어 먹는 액티비티를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장을 보고 미리 재료를 손질해 준 자매들의 수고와 디저트, 게임 등 각자 자원해서 준비해 준 모습을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코람데오의 색깔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꽤 큰 식탁이 가득 찰 정도로 넉넉한 재료(30인분?)를 준비해, 배불리 먹고도 남아 각자 집에 싸갈 만큼 푸짐한 식사를 했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창의력을 발휘



한 다양한 김밥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가진 자매모임은 만나서 헤어지는 시간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족같은 편안함과 따뜻함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조유이 성도 |

■ 영커플/ 특별한 감사모임

‘온전한 예배, 요계벳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어요’

발렌타인을 맞아 요계벳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손길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영커플 엄마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요계벳이 없었던 시절, 아이 둘을 데리고 유아방에서 스크린으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도 겹쳐 마스크를 쓰고 시골벽적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달 후, 교육부 전도사님께서 곧 요계벳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전해주시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이들을 갖기 전에 드렸던 뜨거운 예배가 생각나며 설렸습니다.

요계벳이 생긴 후, 기쁨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분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아본 여인처럼 천국에 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찬양 소리 설교 소리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서있고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그동안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예배



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매주 요계벳 분들과 예배드리는 게 좋다고 하고 집에 와서 말씀 이야기도 가끔 해주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고 하고 찬양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엄마인 저는 말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

서 알아서 아이들을 만나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계벳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김의 길에 서신 우리 요계벳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김지연 집사 |

■ 주안에 Hope

〈2면서 계속〉 조명희 총괄팀장을 비롯해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 오고 있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앞장서고 이제 합류한 팀원들의 중보기도와 선한 손길을 통해 수감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길 기대한다.

한편 3월 4일 새벽예배 후 성가대실에서 열린 2번째 모임에서는 새로운 팀원들을 위한 주안에호프 사역에 대한 구체적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기도와 찬양에 이어 조명희 총괄팀장이 사역 전반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이 있은 후, 총무 전호선 장로가 면회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과정과 절차를, 회계를 맡은 김정이 권사가 수감자들에게 카드 보내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 사항에 대해 이해와 의견을 나누는 후, 갇혀 있는 한 형제에 대한 소식과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감자들에게 보내는 부활절 카드를 작성하는 팀원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되레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얻고

은혜받게 됩니다” 라는 총무님의 말씀이 새로운 팀원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자세라고 느껴졌다.

■ 첫 단합 모임

따뜻한 환대 · 즐거운 식탁 · 웃음보 터진 율놀이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 잠재된 실력을 화합으로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다.

2월 18일 제법 쌀쌀했던 토요일 오후 5시경부터 40여 명의 성가대원들은 전호선 장로님과 전미영 권사님 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음식을 손수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권사님과 옆에서 자상하게 거들어 주신 장로님은 우리가 닦아 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대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마치 부모님 댁을 방문한 듯 착각을 할 만큼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후식 또한 직접 만드신 약식과 식혜로 과식을 피할 수 없었던 여성 대원들의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었다.

새롭게 성가대를 섬기기 시작한 대원도 있었고 배우자의 위치로 참석한 분들도 있어서 식사 후 약간의 서먹함이 감돌 때쯤 시작된 율놀이가 한마당은 모



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호탕한 웃음꽃을 피워내게 했으며 우리 성가대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좋은지 몰랐다는 지휘자님의 한마디는 우리로 하여금 민망한 웃음을 감출 수 없게 하셨다.

실력보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화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황성남 지휘자님의 비전에 모두가 공감

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 만남을 벌써부터 기대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귀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서는 대원들의 뒷모습에서는 결속으로 친근해진 발걸음을 엿볼 수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다시 성가대에 서며...

소리날 때 찬양하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성인이 되어 제일 처음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성가대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아 섬겼는데 그간 30년 정도를 성가대에서 활동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2020년 MP채플 시절을 마지막으로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예배가 중단되었고 성가대 봉사를 마치게 되었다.

* 성가대원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섬기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준 직분이므로 소중히 생각한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 5월 나는 폐에 아주 치명적이고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찬송은 전혀 부를 수 없었는데 그 해에 성가대장 직분을 맡은 상황이라 대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힘

이 없지만 성가연습 시간과 찬양 때 함께 앉았는데 발성은 못하고 속으로만 따라하였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폐를 고쳐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 차도가 있었고 1년 지나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리날 때 찬양 하고 힘 있을 때 섬기자」라는 큰 은혜와 깨달음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소리 못 내고 속으로만 찬양을 부른 것이 평소 불안정했던 내 음정감을 많이 교정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 그런데 지난 1월 우리 교회 성가대 책임있는 몇 분들이 나에게 성가대에 조인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자는 권면을 했는데 나는 바로 답을 못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내 연령대의 사람들이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은혜

롭게 비칠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음악적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양도 좋아 하시지만, 남녀 성별이나 연령의 구별 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온 맘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는 최 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성가대원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형철 기자

■ 선교사의 삶 / 김용신 (아이티)

대지진 참상, 고아들 모습... 이곳에 발이 묶였습니다

나는 중학교 시절 Florence Nightingale 의 전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평범한 가정생활 보다는 뭔가 극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어 왔었습니다.

이후 신앙서적과 선교사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또 매일 큐티를 하면서 어느날 새벽, 큐티 시간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 무협지 등을 읽으며 중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고, 또 한국과는 영사급 교류도 없어 중국 내에는 교인이 없는 줄 알았던 시기, 선교지를 중국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 마침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교수 모 집에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선교사로서의 삶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 전도하며, 교회를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미 제자도 많아졌고, 믿는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연변과학기술대로 돌아와 같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이 편안해지고 이미 제자들



이 내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다른 곳을 찾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사역지를 정할까 하여 그곳으로 떠나려는 중, 아이티를 둘러보고 가라는 지인의 요청이 있어 대지진이 있었던 2010년 방문했다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그냥 바로 고아 몇 명을 데리고 아이티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티에 와서 고아들과 살며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명과 함께 살고 있고, 주변 마을에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는 학생들을 모아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명, 7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 4곳에 교회를 지었고 현재 모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 세 지역에서 학교를 시작해 한 곳은 3년 후 정부로 넘겼고, 한 곳은 주변에 큰 학교가 생겨 문 닫았으며, 한 곳은 8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침례교)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토요일만 공부하게 하여 2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관리와 성경시험을 출제하고, 모일 때마다 돌아가며 설교를 하게 하고, 기도회, 수련회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티 초기부터 이동클리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1일 고용하여 1달에 한 번 지역을 돌며 진료하였으나 약 3년 전부터 쉬고 있습니다.

■ 포토에세이

30년 만의 폭설로 L.A.를 둘러싼 산들은 곳곳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진 풍경을 연출했다. 주안예교회의 교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주하게 겨울왕국을 위한 나들이를 즐기며 동심을 소환했다. 눈으로 길이 막혀서 등산을 포기한 등산팀은 샌디에고에 위치한 'Anza Borrego' 로 방향을 바꾸어서 눈덮인 뒷산

을 배경으로 어우러진 철제 조각상들과 봄꽃의 조화를 만끽했으며, 또한 주일 예배를 안내하던 예배국 봉사자들도 안내 도중 하얗게 눈덮인 교회 뒷산을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다. 사진의 맨 오른쪽은 20목장의 구성원들로 방한복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채 'Frazier Park' 으로 눈꽃축제를 다녀왔다고 한다.



■ 선교사의 삶 / 김현석 (탄자니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이끄심

10대의 사춘기 시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어떤 곳 이길래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늦잠을 자지 못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쯤부터 비판적 사고로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 성인이 된 나는 남들과 똑같이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을 경험해 보며 ‘당자’ 처럼 웬지 저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방탕한 생활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아도 그 갈급함은 여전하였고 대학 동기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졸업, 취업, 연애, 집, 이러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답답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학생활을 멈추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 했던 군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고 30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약간의 해답을 가질 수 있겠지 생각하며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리는 여전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노력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이어 나가던 중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 평생 해오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교회로 들어가 사찰집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무뎠던 아버지였고 무서운 아버지로 기억하는 나로서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응답을 받으셨구나.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하루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새벽예배 버스 운행을 마치고 교회로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서 집에 들어가 자야 마주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 잠을 자는데, 잠시 목이 말라 일어나 나간 거실에서 아버지를 마주치자 갑작스레 따뜻하게 안아 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이’ 하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방으로 돌아와 속으론 아마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니 그러셨겠지 하며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때쯤 저를 담당하던 대학부 간사님의 끈질긴 기도와 주중 만남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격려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누나의 기도가 있었고, 무뎠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 표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교회로 이끌어 준 담당 리더가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005년 10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가운데

언제나 나의 지정석이었던 2층 출구 옆 뒷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매달린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에 너무나 뜨겁게 찾아왔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나의 죄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 내내 흐르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다음 예배에도 그 후에도 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마음 한켠 답답했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답을 얻지 못한 질문에 빛으로 찾아온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께로 맞추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뿐인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 앞에 잠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1년간 주님께 온전히 드러보는 시간을 갖자고 결정하였고, 우연한 만남이 그 후로 한 달 뒤, 교회에 오신 파송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이왕 드린 시간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시간을 사용하자 결정을 하였고, 생애 첫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2박 3일의 비행 일정에 긴장을 늦출 수 없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영어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저는 경유 하는 방법과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을 머리 속에 되뇌이며 드디어 도착한 탄자니아에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가 단순히 내가 결정해서 온 땅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10개월 간 아프리카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경험한 시간을 통해 내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이었나 깨달았고, 선교 센터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도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작은 고백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 이후 지속적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였고 5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011년 6월 7일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탄자니아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간의 사역을 마치고 기적같은 인도하심으로 미국 방문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고민해오던 신학교 공부의 시작을 통해 2기 사역의 모습은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실 지 기대해 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음악산책/ 음악회 예약시스템의 유래

궁정음악가 자리 박차고 ‘프리선언’ 한 모차르트

만약 우리들이 음악회를 관람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약을 하고 티켓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 미리부터 예약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음악회 관람을 위한 예약 시스템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일까.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음악가는 왕궁이나 교회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기능인이었다.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기보다는, 고용주의 주문에 따라 정해진 음악적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모차르트는 당시 제정일치 사회였던 잘츠부르크에서, 통치자인 콜로레도 대주교에게 고용되어 왕궁의 음악가로 일했다. 왕궁에서 일한다는 것은 음악가로서 가장 높은 명예와 처우를 보장받는 일이었지만 모차르트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처지와 자신의 의지대로 음악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1781년 6월 8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왕궁에서 나오게 된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모차르트는 이제 음악가로서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그는 최초로 예약을 받고 관객을 모아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가던 시대 분위기와 신형 시민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음악회는 날로 성황을 이뤘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 음악가로 활동한 지



채 3년도 안 되어, 오스트리아 음악계의 스타로 떠오른 모차르트는 쌓여가는 부와 명예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자리 잡게 된 예약 음악회는 19세기에 들어서며 더욱

활성화되었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천국의 자리는 예약되어 있다.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실행하며 증명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자리가 정해지게 된다. 매일의 삶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천국의 VIP석을 먼저 예약해 보자.

| 황성남 기자 |

■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은 성 주간 (Holy Week) 이라고도 불리며 사순절 절기 내에 포함 된 절기로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 다음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1주간을 말한다. 이 한 주간을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간’ 또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이라고 사람들은 일컫기도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으로 여길 수 있겠다.

예수님의 통치방식은, 겸손히 낮아져서 그 백성을 섬기는 것으로 십자가 대

속은 그 겸손과 섬김의 완성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표현이다.

2023년의 고난주간은 4월 2일(주일) 부터 4월 8일(토요일) 까지 지켜진다. 이 기간에 예수 최후의 성만찬, 십자가 고난과 죽음, 장례 등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느 때 보다도 정결하고 엄숙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부활’이 있었기에 고난주간이 한 주간만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되돌아 볼 때 늘 소망을 예비하시고 그 길



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제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상태가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였음에도 우리는 자신의 ‘안전’ 을 고려하며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2023년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며 챙겨서 우리의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 지금도 영적 고난에 힘들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기대해 본다.

| 오희경 기자 |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에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